

누리예산 끝길까... 불안한 젊은 엄마들

정부-교육청 힘 겨루기에 올 어린이집 원생 2100명 감소 9일부터 광주·전남 유치원 858곳 원아모집...경쟁률 촉각

광주·전남 유치원들의 원아 모집이 시작되면서 또래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떠넘기기'로 자칫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끊길 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유치원 모집 시기를 들여다보는가 하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타야 할 지'를 고민하는 엄마들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도 이 과정에서 유치원 입학 경쟁 등이 벌어질 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가깝긴 한데...지원안되면 어쩌지=광주·전남 교육청은 최근 광주·전남 유치원 858개소에 원아모집 시기와 추첨·등록, 우선입학 대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발송, 이달 중순부터 유치원별로 원아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오

만 3~5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1367억) 중 유치원 지원 사업비(706억)를 제외한 어린이집 지원 경비(670억)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전남도에 1433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예산(482억)만 편성,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어린이집 예산(951억)은 확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올해 초만 해도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진 1~2월 이후 어린이집 아동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유치원생은 늘어났다. 올 3월 광주 어린이집 원생은 4만3064명으로, 전년도 같은기간(4만5194명)보다 2100여명이 줄었다. 반면, 유치원생의 경우 올 3월(2만3468명)이 전년도 같은 시기(2만2130명)에 견주어 증가했다. 전남도 올 4월 유치원생(1만9984명)이 전년도 같은 시기(1만8951명)보다 늘었다.

어린이집도 비상이다.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는 유치원으로 몰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공립 유치원 경쟁률 치열할 듯=광주 시교육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교육·보육료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집 대신, 유치를원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자칫 '유치원 입학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교육청은 특히 올 해 경쟁률이 치열했던 공립 단설 유치원들의 '입학 경쟁'이 가열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건국유치원(공립단설)의 경우 올해 116명 모집에 701명이 몰려 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가장 높았고 여영(4.93대 1), 신원(4.19대 1), 세별초병설(3.49대 1), 고실초병설(3.32대 1), 큰별초병설(3.04대 1), 수완초병설(2.60대 1), 정덕(2.59대 1), 수문초병설(2.51대 1), 문산초병설(2.51대 1)유치원 등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공립 유치원 경쟁률 치열할 듯=광주 시교육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교육·보육료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집 대신, 유치를원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자칫 '유치원 입학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교육청은 특히 올 해 경쟁률이 치열했던 공립 단설 유치원들의 '입학 경쟁'이 가열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건국유치원(공립단설)의 경우 올해 116명 모집에 701명이 몰려 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가장 높았고 여영(4.93대 1), 신원(4.19대 1), 세별초병설(3.49대 1), 고실초병설(3.32대 1), 큰별초병설(3.04대 1), 수완초병설(2.60대 1), 정덕(2.59대 1), 수문초병설(2.51대 1), 문산초병설(2.51대 1)유치원 등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잘 자라서 돌아오렴~” 광주시 북구와 영산강어메니티운동 봉사단, 북구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이 4일 북구 용전동 용산마을 앞 영산강변에서 열린 영산강 어종 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 행사에서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미 공군 훈련, 소음 기준 크게 초과 '가시방석' 시교육청

오후 116.9dB·야간 109.1dB...기준 70dB 웃돌아

광주에서 진행 중인 한미 공군의 대규모 전투기 훈련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광주 군 공항에서 3~4km 떨어진 우산동 신창마을과 송대동 대촌경로당에서 오전, 오후, 야간에 각 한 시간씩 순간 최대 소음도를 측정해 결과, 최고 116.9dB(데시벨)을 기록했다 4일 밝혔다. 훈련 첫날인 2일 오후 순간 최고 소음도는 108.9dB를 기록했으며 3일 오전 110.3dB, 오후 116.9dB, 야간에는 109.1dB로 측정됐다.

이는 환경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70dB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열차가 방음벽

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지날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90~100dB보다 훨씬 시끄럽다. 이 같은 수준의 소음은 각종 청력 장애 유발은 물론 수험생 집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날 운영현황 광주시청에 전화로 걸어 “광주시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Vigilant ACE)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시장이 지난 2일 합참의장에게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최소화를 요청한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재정 부실 운영 날선 지적 예고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예고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우선, 교육재정 운영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회측은 이미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입수, 시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질타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7개 시·도 중 경기와 충북을 제외하면 가장 낮고 8개 특·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하면 꼴찌에 머무른 광주시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한 재정 운영 여부를 꼬집겠다는 것이다.

또 성추행 혐의로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시교육청 산하 A수련시설 직원의 복직 여부도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대로라면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복직 뒤에도 비슷한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 모드를 보이고 있다.

또 교육청 주요 현안인 희망교실의 허술한 예산 집행 실태를 따지고, '17개 시·도 학교급식 만족도 실태 조사'를 확보해 현재 낮은 광주의 학교급식 만족도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의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7 해질 17:35
달출몰 00:53 달지름 14:10

새벽 한때 비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1/19	보성	구름많음	7/19
목포	구름많음	11/20	순천	구름많음	10/20
여수	구름많음	13/19	영광	구름많음	10/21
나주	구름많음	9/21	진도	구름많음	11/20
완도	구름많음	11/19	전주	구름많음	9/18
구례	구름많음	7/20	군산	구름많음	10/19
강진	구름많음	9/20	남원	구름많음	5/18
해남	구름많음	9/21	축산도	구름많음	13/17
장성	구름많음	9/21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면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1.0~1.5
서부	면바다(서)	동~남동	0.5~1.5	동~남동	1.0~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56	02:24	21:40	14:35
여수	밀물		썰물	
	04:48	10:24	16:59	23:38

◇주간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	☁	☁	☀	☀	☀	☀
11/19	13/17	15/18	14/17	12/15	8/18	8/16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낮음
산불	보통

순천대 총장 선임 갈등 확산

1순위 후보 행정소송 방침...교수들, 총장 자진사퇴 투쟁

순천대 1순위 총장 후보였던 정순관 행정학과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순천대 일부 교수들은 또 신임 총장 자진사퇴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정부의 총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4일 “총장 임용 제청권을 비정상으로 행사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추천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정처분”이라며 “개인의 권리 침해로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대교수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총장 임명 철회’와 ‘현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오는 5일부터 학교 앞 1인 시위와 교육부 항의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변호사와 상의해 위헌 여부나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법률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광주경찰,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내년 2월 9일까지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100일동안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회원이 수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도박개장 죄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할

방범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최장 4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하면 도박 개장 공범으로, 도박사이트 서버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면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소액·초범의 경우에도 즉결심판 청구 등 전원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jtbc GOLF 2015 골퍼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10월 10일~12일 이틀간 진행중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에스골프

에스투어

해외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시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야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블로합사항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석식, 카트비(캐디비, 캐디팁)외, 별도 추가비용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기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 사

서울 (수도권지역) 1566-9799
대전 (충남, 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 (경북, 대구지역) 053) 248-6666

경남 (경남, 부산지역) 051) 916-7070
부산 (경남, 부산지역) 051) 916-9700
울산 (경남, 부산지역) 052) 260-4575